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경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5
----------	------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의자 : 박경흠, 이명녀, 문희성
홍영진, 김태욱, 문기호
김도운, 강혜순

1. 제정이유

최근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등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실태조사 등(안 제4조)

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및 위탁(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비밀준수(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홍보 및 포상(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4. 4. 25. ~ 5. 1.(6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葉]: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 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 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
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
(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작성자

- 소 속: 보건과
- 직 급: 지방간호서기
- 이 름: 김나리
- 연락처: 290-4318